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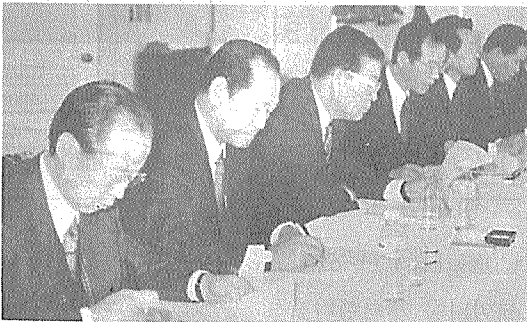
# — EIAK 소식 —

## 전자산업발전 민간협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8일 무역구락부에서 동협의회(위원장: 구자학 본회 회장)를 개최하고 상공자원부 박수훈 전자정책과장, 동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분야에 LCD(액정 표시장치),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영상 등 신기술을 추가하는 등의 전자분야의 첨단산업 범위 조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상공자원부 박수훈 전자정책과장은 21세기 국내 전자산업 발전을 선도할 첨단 기술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같이 첨단기술 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자금 확충 및 용자기간 연장, 금리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인하와 향후 첨단기술 및 범위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필요성과 이의 개정시 동협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 전자산업협력단 중국 파견

본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한·중 전자산업의 우호협력을 위해 대중국 전자산업협력단을 파견했다.

동협력단은 상공자원부 김세중 전자정보 공업국장을 단장으로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등 업계대표 11명이 참가했다.

동협력단은 중국 국가기관인 전자공업부 연구기관인 중국전자공학회, 업계로는 통신기기, 반도체, 칼라TV, 전자부품업체 등을 방문한·중 전자산업 실무협의를 통해 HDT·FAX·전전자교환기에 대한 산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한국 전자제품을 북경전시회 개최에 관해 협의 하기도 했다.

한편 동협력단은 천진·소주·상해 지역의 전자산업 동향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전자산업의 정책은 대외개방과 대내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또한, 다수의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하고, 소수 대규모 공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을 보유한 중국기업을 합작파트너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외국합작선이 경영토록 하여 경영기법을 배우고 있다.

중국 전자기술 수준은 한국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으로 기술수준은 한국에 비해 10~15년정도 뒤진 것으로 판단되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최적기는 향후 2~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흑백TV와 칼라TV의 생산이 50:50수준이며 25인치 이상의 브라운관은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천진·소주·상해지역의 투자환경은 대단위 공장 조성으로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천진지역은 북경과 인접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통신시스템 등 대단위 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산업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주지역은 싱가포르가 70km<sup>2</sup>의 대단위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3월부터 1단체사업(8km<sup>2</sup>)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통신·기계·광기술·생물·신소재 등 고기술 개발구를 조성하고 있어 전자산업의 투자에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지역은 조기개발로 교통의 편리, 상업지역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화학, 철강, 금속부문의 외국투자가 많고 전자산업의 투자는 비교적 적어 향후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 '94국산종합유선방송장비 전시회(KCBS '94) 개최

본회의 CATV기기산업협의회(회장: 배석채 동양텔레콤 대표)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회장: 현소환 연합통신 대표)는 공동으로 지난 3월 9일,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국산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 성공적 추진지원을 위해 "94국산종합유선방송장비 전시회(KCBS '94)"를 개최하였다.

동전시회는 2일간에 걸쳐 150여종의 250여 품목이 전시되어, 기존 전시회와는 달리 시기

적으로 실수요자(프로그램 공급자, 방송사업자, 전송망 사업자)들의 최대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전시형태도 참관자들이 직접 측정해봄으로써,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전시품목을 살펴보면 방송부문에 있어서 방송용카메라, VCR, 컴퓨터 그래픽시스템, A/V Routing 스위치, 모니터시스템, Tallay System, VDA, 오디오믹서, ADA, 턴테이블 등이 전시되고, 특히 최근에 개발된 마스터스위처, Image Pick-up 시스템 등이 선을 보였고, 전송부문에 있어서는 '92년 10월이후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와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 추진해 온 망감시 시스템 및 가입자관리 S/W 등이 참여기업들에 의해 상품화 되어 전시되어 있으며, 현재 조달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전송시스템들이 일제히 출품되어 조달규격과의 비교전시를 해보임으로써 전시회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켰다. 단말기의 경우에는 쌍방향방식의 제품들이 대거 출현하여 서비스사업자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주는 기회가 됐다.



### UR·NAFTA 관련 통상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업계 통상담당자 100여명이 참석, 본회의 미국 고문변호사(Mr. M. Spina)를 초청연사로 하여 국제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전자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UR과 NAFTA 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전자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모색되었다.



###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자** 기미디어산업협의회는 지난 3월 2일(수) (주)SKC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Video Tape 생산업체 임원들이 참석 수출관련 정보교류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모** 모니터표준화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수급업체 7개사가 참석 6φ 레디얼 테이핑 타입 반고정 저항기(0.1W용, 0.3W용 2개 규격)에 대한 표준화 확정과 차기 표준화 대상과제(Tact Switch)를 선정하였다.

**코** 넥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우영 등 3개사가 참

석한 가운데 가전제품용 압접식 코넥터 표준화 규격(2.0mm, 2.5mm, 3.96mm)을 확정하고 차기 표준화 대상과제(FPC코넥터)를 선정하였다.

**TV**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지영사에서 (주)금성사 등 수급업체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칼라TV용 Line Filter 표준화 추진방향을 협의하였다.

**F** BT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대우전자부품(주) 등 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표준화 제정규격 채용 현황 파악과 차기 표준화 대상과제(고압 다이오드, 브리지 저항, 컴포지션 저항)를 선정하였다.

**알** 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영전자공업(주) 등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표준화 제정규격 채용 현황 파악 및 표준화 대상과제(8φ 이하의 포장 BOX)를 선정하였다.

**진** 공청소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금) 대우전자(주) 광주공장에서 (주)금성사 등 청소기 생산업체 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공청소기 수입부품가격 정보교환과 진공청소기용 연결 파이프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 HA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3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8개사가 참석 표준화 규격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매체별 규격 추진 일정 협의와 배관 배선 규격 제정 방안을 협의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3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사들이 참석 HA 규격 중 동축케이블 및 리모콘 규격 추진 방안 수립과 관련 회

의를 개최하고 동축케이블 및 리모콘 가격 표준화 방안을 협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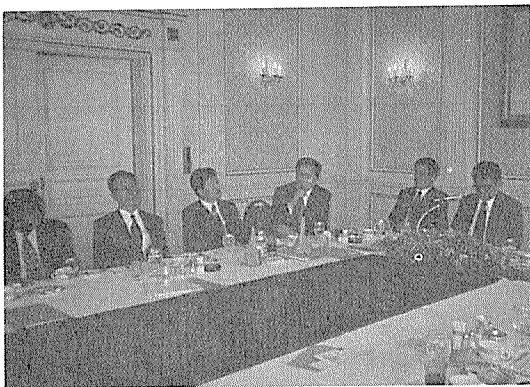
### 가전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주) 김영인 수석연구원 등 7개사가 참석 CD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CD분과위의 현안 문제점과 '94년 중점 추진사업을 협의 했다.

###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3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메디슨 이승우 부사장, 미국의 Terri L. Ethrage 등이 참석. 한·미 의료기기산업기술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의료기기산업에 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 CATU 기계산업협의회



**지** 난 3월 31일 동협의회는 팔레스 호텔에 서 상공자원부 김세종 전자정보공업국장,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배석채 동양텔레콤 사장 등 회원사 20개사가 참석 '94년 연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93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94년 사업예산을 심의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임원 개선에서는 동양텔레콤 배석채 현회장을 유임시키고 부회장에 동서전자 장기선 사장, 감사에 코리아 일렉트로닉 텔레콤 문기대 시장을 선임했다.

### 상공자원부 인사

통상정책국장	秋俊錫
통상협력관	韓永壽
무역국장	鄭永惠
산업정책국장	崔弘健
산업기술국장	宋金德
통상정책과장	金鍾甲
국제협력과장	李弘圭
무역정책과장	朴永基
무역협력과장	朴良雨
산업정책과장	李成宰
산업환경과장	金悅
산업기술정책과장	白萬基
산업기술진흥과장	姜昌淳
산업기술인력자원과장	李普遠
산업기술협력과장	高廷植
정보진흥과장	許範道
부품반도과장	金益晚
생활전자과장	孫鍾彩

**1994년은 품질의 해**